

아동과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와 도움행동 간의 관계 : 공감, 죄책감 및 감사를 중심으로

한 지 영(명지대 석사) · 김 정 민(명지대 조교수) · 김 재 정(명지대 박사)

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과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(성별, 학년, 종교유무)에 따라 도덕적 정서 중 공감, 죄책감 및 감사와 도움행동에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, 아동과 청소년의 도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도덕적 정서 중 공감, 죄책감 및 감사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도덕성 함양을 위한 도덕발달에 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.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초등학교 4·5학년생, 중학교 1·2학년생, 고등학교 1·2학년생 총 10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, 회수된 설문지들 중 유효한 938부 만을 가지고 분석하였다.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안주연(1999)의 관점취하기, 상상하기, 공감적 관심, 개인적 고통 등 4개의 하위요인 총 20개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, 죄책감 척도는 류설영(1998)의 수치심 및 죄책감 척도(TOSCA-Adol) 중 죄책감 경향성에 해당하는 12개 문항을 사용하였고, 감사척도는 권선중(2006)이 사용한 한국판 감사성향 척도(K-GQ-6)의 6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. 또한 도움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천영옥(1996)의 도움행동 척도를 참고하여 조력, 증여, 관용, 협력, 친절, 동정 중 이타심을 측정하는 관용을 제외한 5개의 하위영역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. 자료 분석방법은 SPSSWIN 12.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, 빈도와 평균, 표준편차, Cronbach's α 계수, t검증, 일원변량분석 그리고 Pearson 상관분석, 단계적 다중회귀분석,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통계처리 하였다.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첫째, 아동과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 중 공감, 죄책감과 도움행동은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감사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. 또한 학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는데, 초등학교생이 죄책감, 감사를 더 많이 느끼고, 도움행동을 가장 많이 하며, 고등학생은 공감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그리고 종교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이 공감과 감사를 더 느끼고, 도움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둘째, 도덕적 정서 중 공감, 죄책감 및 감사는 아동과 청소년의 도움행동에 영향을 미치며, 구체적으로 초등학교생은 공감의 하위영역인 공감적 관심이 높을수록, 중학생은 죄책감이 높을수록, 고등학생의 공감의 하위영역인 관점 취하기가 높을수록 더 많은 도움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셋째, 공감이 도움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감사는 부분적인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넷째, 죄책감이 도움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감사가 부분적인 매개역할을 하나, 죄책감이 도움행동 하위영역 중 증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감사가 완전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본 연구결과, 도덕적 정서 중 공감, 죄책감 및 감사는 아동과 청소년의 도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이며 초등학교생은 정서적 공감능력인 공감적 관심이 높을수록 도움행동을 하고, 중학생은 죄책감이 높을수록 도움행동을 하며, 고등학생은 인지적 공감능력인 관점 취하기가 높을수록 도움행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. 이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의 도움행동을 위해 학년별 함양해야 하는 도덕적 정서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.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과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이 후 아동과 청소년의 도덕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상담·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.